

## 나그네의 본향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한다.. 우리는 낭만시의 최고봉인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를 기억한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 술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가 막히는 시다. 단어들의 연결이 한점 군더더기가 없다. 언젠가 이런 시를 쓰고 싶다.

누구나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두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과 죽을 때는 누구나 빈손이라는 것이다.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행지인가 종착지인가. 본향인가 타향인가. 내가 나그네이며, 여행자라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있을 것이고 떠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고향>이라고 하자. 그 고향은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인가. 아니다. 고향은 나의 육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 나의 영혼이 태어나고 또 돌아가야만 하는 곳은 아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고생 고생 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허무한 일 아닌가. 육신의 고향이 아닌, 나의 <본향>은 어디인가. 태초에 내가 살던 그곳,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곳, 하나님으로 부터 이 땅에 내려가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고 떠난 곳,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라는 그곳,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가야 할 그 곳, 그곳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본향을 극락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본향을 <하늘나라>라고 한다. 어쩌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므로 들어가기에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일 수 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었을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신학적으로 <본향>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인간의 <조건부적 한계성>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다. 절대자는 인간이 상상도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할 수 없는 위대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싶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갈지 그것만 다를 뿐, 그것은 각자의 몫일 것이다..

올봄에 아내가 미국 시민권 선서식을 하였기에 기념사진도 찍어줄겸 해서 동행을 했다. 나는 아내보다 몇달 전에 혼자서 미국 시민 선서식을 했는데 그때는 별 감정이 없었다. 그런데 아내의 선서식을 지켜 보면서 마음이 몽클했다. 이민자의 삶이 그러하듯이 내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이미 짜여진 좁은 통로를 무조건 지나가야만 하는 세월이었다. 통로가 좁으니 몸을 되돌려 돌아 갈 수도 없는, 내가 몸을 되돌려 나가면 나를 믿고 뒤따라 오는 가족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하는, 그런 갑갑함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별 연고도 없이, 가진 돈도 없이, '어떻게 되겠지. 굶지는 않겠지, 애들 학교는 보낼 수있겠지'라는 막연함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지 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별 한 것도 없이 먹고 사는데만 10년이 흐른 것 같다. 여행비자로 도착한 미국은 시작부터 모든게 생소하였으며, 내가 몇차례 출장와서 느끼던 미국과도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적응할 여유도 없이 사전 정보도 없이,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구멍가게를 샀다. 변호사는 투자 금액이 너무 작아 E-2 비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책임진다며 강제로 접수시켰다. 그런데 E-2 비자가 승인되었다. 영주권 신청도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비들을 넘겨야 했다. 자식들 나이가 성인이 될 나이인데 오늘 내일 풀린다는 이민정책은 애간장만 태우고 여러해를 넘기던 세월이었다. 지금까지 거처온 과정에서 나의 자존심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미국시민이라고 하니까 기쁘기는 커녕 착잡한 기분이었다. 어쩌다가 내가 미국 시민까지 되었는가. 미국은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여행지였는데, 이제 이 곳이 종착지란 말인가. 나의 고향과 본적지는 부산이다. 나는 48년을 한국에서 산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이 나이에 미국인이라니. 궤도를 벗어난 우주선을 탄 기분이다. 물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죽는 날까지 고향인 부산에서 살 일이 있을까. 굳이 여행이라면 몰라도 그곳 부산에 누가 있어 나를 반겨줄 것인가. 태어나서 자라난 20여년의 고향은 이미 빛바랜 기억들 뿐이다. 또 한국에는 나를 반겨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이미 나에게는 한국도 타국이고, 미국도 타국이 되어버렸다. 어디에서 살던지 모든 곳이 타향이다. 어디에서 사나 타향을 떠도는 신세니 나는 <나그네>인 것이다. 정든 님과 정들어 살면 그곳이 제 2의 고향이 아닐까. 살다가 살다가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미국 시민으로 살아보자. 사는 그날까지 아무리 나그네 신세라고 하지만 공짜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나를 미국시민으로 보호까지 해 주니 밥값은 하고 가야지..

황주경 시인의 <나그네>의 마지막 소절을 음미하면서... “~ 사랑을 안고 가는 행복한 나그네 / 빈 가슴 왔다가 사랑 채워 가져가니 / 받은 사랑 빛으로 남기지는 말아야지 / 간곡한 기도마다 눈물로 거름삼고 / 머문 자리 뒤돌아 추함은 없는지 / 그것도 상관 말고 진실 되게 가야지.”